



광남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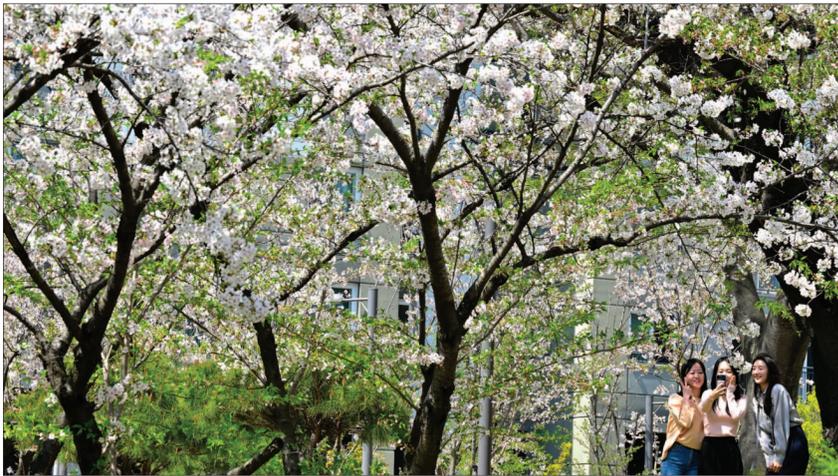
 '통합 체육시설' 나주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 윤병태 시장 "복지·체육 조화...건강한 삶 기대" 8	 진도, 외국인 유치 '지역특화형 비자' 추진 김희수 군수 "경제 활성화·인력난 해소 도움" 10	 AI페퍼스, 아시아쿼터 1순위 와일더 지명 호주 출신 아웃사이드 히타...지난해 GS서 활약 12	 광주은행,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재기부 임직원 1억3000만원 기부 참여 14
---	---	--	--

조간 제7822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음력 3월 17일)

■ 대선 D-50...민주당 대권 레이스

공약 반영·인사 등용...호남 민심 잡아야

광주전남 정치권·인사들
'이재명 캠프' 합류·지지
'AI 시범도시' 조성 등
10조 규모 공약화 절실



벚꽃나무 아래서 13일 오후 광주 서구 농성동 상록리관광원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벚꽃나무 아래서 사진촬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텃밭인 호남 인사들에 대한 등용과 지역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야권 유력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전 대표의 캠프에 광주·전남 정치권과 지역 인사들이 합류하거나 지지를 선언하고 있어, 향후 이들의 역할론과 민주당 내에서의 '호남 홀대론'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관련기사 4·15면

13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1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경선 캠프 인선을 발표했다. 캠프 좌장인 선대위원장은 윤호중 의원(5선), 총괄본부장 강훈식 의원(3선), 정책본부장 윤추덕 의원(4선), 종합상황실장 한병도 의원(3선), 정무전략본부장 김영진 의원(3선), 공보단장 박수현 의원(재선), TV토론탄장 이소영 의원(재선), 비서실장 이혜식 의원(재선), 대변인 강규영 의원(초선) 등이다.

이날 발표된 명단에는 광주·전남 인사들이 눈에 띄지는 않았으나, 경선 캠프 내 법률지원단장에는 광주 국회의원이 박군택 의원(광산갑)과 정준호 의원(북구갑)이 포함됐다.

이재명 전 대표의 대동동 재판 변론을 맡아 온 박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나자 당직인 법률위원장을 사임하고 경선 캠프에 합류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정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단 부대표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 의원은 정 의원은 경선 캠프에 인선됐지만 초선이어서 공식 발표에서는 제외

됐다. 이는 조지 슬림화와 본선 조지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민주당 안팎에서는 '비명계 인사'를 경선 캠프의 중심에 두고, 본선 캠프에는 전명계 중심으로 대거 포진시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이 전 대표의 경선 광주지역 책임 의원으로는 재선인 민형배 의원(광산을)이, 전남지역은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맡게 됐다. 특히 이재명 예비후보 후원회장에는

5·18 유가족인 김승희씨가 임명돼 주목을 받고 있다. 후원회장을 맡은 김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맞선 시민이자 계엄군의 총에 오빠를 잃은 유가족이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지키기 위해 상경해 주목을 받았다. 김씨는 비상계엄 당시 아들에게 "엄마가 내일 아침까지 소식 없거든 죽은 줄로 알라"는 말을 남기고 국회 앞으로 달려갔

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광장을 지켰다. 후원회는 "명망가가 회장을 맡는 관행을 깨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인공인 시민이 주도하는 후원회를 만들겠다는 참여자들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의 중에서는 신경준 의원(나주·화순)이 지난 10일 처음으로 이 전 대표 지지를 공개 선언하기도 했다.

▶2면서 계속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민주당, '당원 투표 50%·여론조사 50%' 경선 국힘, 1차 경선서 4인...2차 경선서 2인 압축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병행해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권리당원 투표에는 정당사상 처음으로 16~18세 '청소년 당원'이 참여한다.

13일 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내용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에 관한 특별당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를 위해 총정권, 경선권, 호남권, 수도권 등 4개 권역에 걸쳐 순회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아직 순회경선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권리당원 투표에는 16~18세 당원도 최초로 동참한다. 이들 청소년 당원을 포함해 경선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110만 여명이 권리당원 투표 참여 대상이다.

이는 2022년 1월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 하한이 18세에서 16세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로 추출한 표본 100만명을 여론조사 기관 2곳에 50만명씩 나눠 실시한 뒤 결과를 합산한다.

특별당규는 13일 정당원 투표와 14일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2면서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한전, 에너지밸리에 380억 투자 유치

원광에스엔티, 혁신산단에 공장 착공...역대 최대

한국전력이 나주 에너지밸리에 민간기업 역대 최대 규모인 380억원 투자 유치가 성공했다.

한전은 최근 나주 혁신산단단지에서 열린 ㈜원광에스엔티 공장 착공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한전의 지속적인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 노력이 빛어낸 값진 결실로 평가된다.

착공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전남도의회, 산업계, 한전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착공을 축하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했다.

인원에 본사를 둔 원광에스엔티는 태양광 발전장치 제조 및 폐모놀 처리 전문기업으로, 재생에너지 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거점 확보를 모색해 왔다.

원광에스엔티 관계자는 "공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한전과 나주시의 적극적인 협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특히 태양광 발전 설비 최대 설치 지역인 전남권 거점화에 따른 물류비 절

감 효과, 나주시의 전기요금 지원 정책이 높게 평가해 에너지밸리 혁신산업단지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전과 나주시는 앞서 2023년 12월 원광에스엔티와 에너지밸리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원광에스엔티는 이번 공장 착공을 통해 180억원을 우선 투자하고 지역인재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향후 200억원을 추가 투자해 규모를 확장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 유치는 한전이 추진해 온 에너지밸리 활성화 전략과 미래 유망기업을 위한 생태계 조성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원광에스엔티는 한전의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사업 수혜기업으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모두 갖춘 대표적 유망기업이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망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과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에너지밸리를 미래 에너지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무안 돼지농장 2곳서 '구제역' 발생

전남도, 살처분 등 긴급조치...이동제한 3주 연장

한동안 전남지역에서 잠잠했던 구제역이 무안 돼지농장에서 발생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군 3km 방역대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검사 과정에서 돼지농장 2곳의 축사 바닥 환경 시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해당 농장 돼지 타액 등의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난 11일 최종 양성 판정됐다.

무안 돼지농장 두 곳은 각각 사육 규모가 4000여마리, 1500여마리로, 무안 첫 번째 발생농장(전남 5차 발생)에서 각각 1.9km, 1.5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전남도는 두 곳 모두 구제역 자연(야외) 감염원체는 검출되지 않았고, 백신항체 양성률도 98.4%로 높아, 백신접종으로 방어능력이 생겨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남도는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농장별 2명씩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확산 차단을 위해 신속히 살처분, 무안 3km 방역지역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이동제한 기간을 3주간 연장할 방침이다.

전국 우제류(소·돼지·염소·사슴 등) 농장, 관련 종사자·차량 등에 대해서도 13일 오후 3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한편 전남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13일 기준 영양 13건, 무안 3건 등 총 16건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 살아? 이 앱 # 들어봤어?

맛집·카페·핫플 광주의 다양한 가게 한눈에

잇샵으로 핫플 추천, 쿠폰으로 혜택받자!

모두의 쿠폰, 잇샵 #

